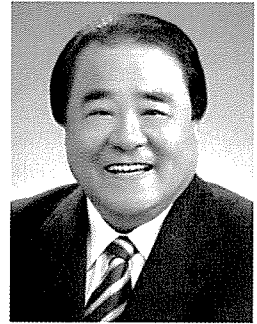


모든 국민이 기억해야 할 ‘사회복지의 날’



김 득 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일곱 번째를 맞는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의 날'을 일반 국민은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기념일이 수십 개에 달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념일도 많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어린이날(5월 5일), 입양의 날(5월 11일), 노인의 날(10월 2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많은 기념일을 일일이 헤아리고, 기억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나 관련분야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국민은 9월 7일을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미약한 편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회복지란 한 마디로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더욱이 시대적 흐름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상황이다. '웰빙'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행복의 의미를 나누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이상(理想)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말할 하곤 한다. 그들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공적인 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단체,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이직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들의 사기와 의지를 북돋워 사회적 약자가 희망의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든든한 디딤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만 성장하면 사회복지정책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이러한 믿음이 깨져 버렸다. 가정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출산율이 저하되고 빈부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성장이 되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필수이며, 복지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이루기 어렵다.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등 국가적 과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성장과 복지가 서로 어우러져 순환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솟을 수 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은 희망을 노래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진, 모든 국민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다. ☺